

주일 예배 11시

2017년 9월 10일 (둘째 주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

예배로의 부름

사회: 김성진 집사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149장) 다 함께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함께

\*교독문 91번 다 함께

\*찬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273장) 다 함께  
기도 하재혁 집사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369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범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사무엘하 11장 26-27절)

성찬식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94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주일에 찬양으로 봉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김성진 집사에게 신청)

-성경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읽을 성경:시편 119(145-176절까지 매일 16절씩)-124편,  
출애굽기(1-20장)

- 기도해 주세요-
- 1.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
- 2.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 3.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
-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목상

여호수아 5 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와와 군대 장관으로부터 여호수아가 들은 아주 소중한 말씀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이긴다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내 하나님만 인식하는, 신발을 벗은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자로 내려놓고 내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빛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려놓고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 그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빛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 마음은, 대적이 우리 밥처럼 가볍게 보입니다. 그곳에 이감이 있습니다.

대적만 이기는 줄 아세요?

어둠과 죄악도 이기고, 우리가 부딪친 모든 환경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길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 패배자입니다.

아이 성에서처럼 대적을 바라보고 가벼이 여겨도 실패하겠고, 대적을 바라보고 두려워해도 여리고 성의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유업과 내 주님 모신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벗은 발로 땅을 밟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이 주님만 모든 것 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천국까지 주님을 모시고 생생한 믿음을 가진 이 놀라운 걸음을, 평강 속에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나의 일상에서

민신애

## 나를 택해 주신 주님

이혜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나의 예수님!

오늘도 새롭게 불러봅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어김없이 주어지고

늘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지만

그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삶, 그 자체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 견고히 서고

더욱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말과 행함 다 아시고

관여해 주시는 주님!

그리하여

늘 감사한 내 주님!

고마우신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드리고 싶습니

다.

예수님! 나의 주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 (요 15:16)

저의 선택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의 의지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의 신앙이요

저의 기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오만했던 생각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하여 주심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열매 맺는 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길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PALOUSE KOREAN CHURCH



2017년 9월 10일(37주) 31권-37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